

WTSA-24 국제회의의 결과

김대중 TTA 본부장
강부미 TTA 단장
김기훈 TTA 센터장
이민아 TTA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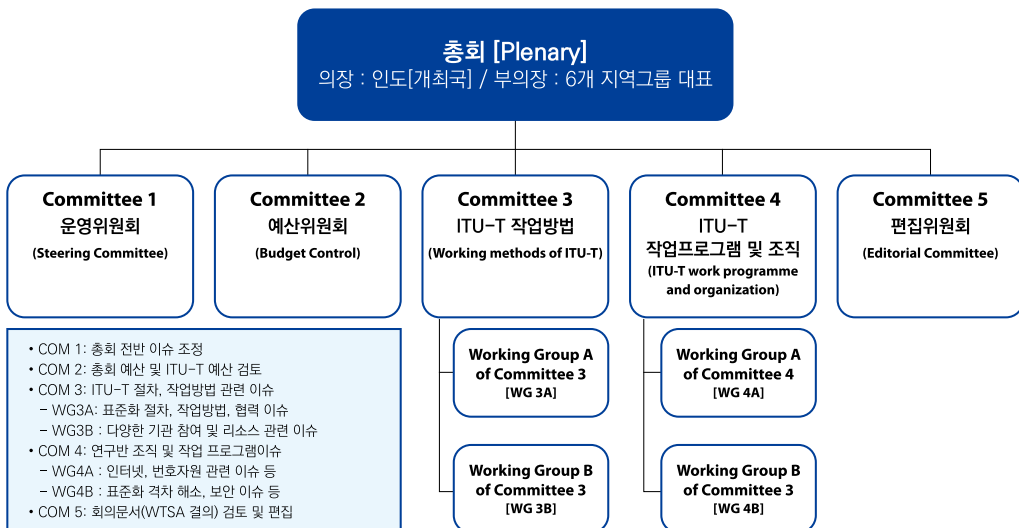
1. 머리말

WTSA(전기통신표준화총회,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T 분야 총회이다. WTSA 회의에선 ITU-T의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결의의 제정·개정·폐지, ITU-T 작업방법 등을 정의한 A 시리즈 권고제·개정, 연구반 구조조정, 연구과제(Question) 승인 등을 결정한다.

WTSA-24가 2024년 10월 15일~24일,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됐다. 이는 약 2년 7개월만에 개최된 것으로, 이전 총회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0월에서 2022년 3월로 연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선 WTSA-24에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순천향대 등 28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WTSA-24 회의는 5개 COM(Committee) 및 산



[그림 1] WTSA-24 구조

하 4개 WG(Working Group)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APT(아태지역)을 대표해 총회 부의장(김형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WG3B 부의장(이민아 TTA 책임연구원), WG4B 부의장(염홍열 순천향대 교수)을 수임하는 동시에, 다수의 애드혹 의장도 수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원격 참석자는 실시간 모니터링만 가능한 형태로서 참가 및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특히 애드혹처럼 대부분의 합의가 도출되는 회의는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으로 1,9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2. 주요 회의내용

2.1 ITU-T 연구반 구조조정

2008년 이후부터 SG20이 신설된 2015년까지 ITU-T는 1개 자문반 및 10개 연구반으로 구성됐으며, SG20 신설 후엔 2024년 10월까지 1개 자문반, 11개 연구반으로 총 12개 그룹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016년 WTSA-16 당시 SG9(광대역 케이블 및 TV)를 타 연구반으로 통합하는 제안이 검토됐으나, 일본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WTSA-20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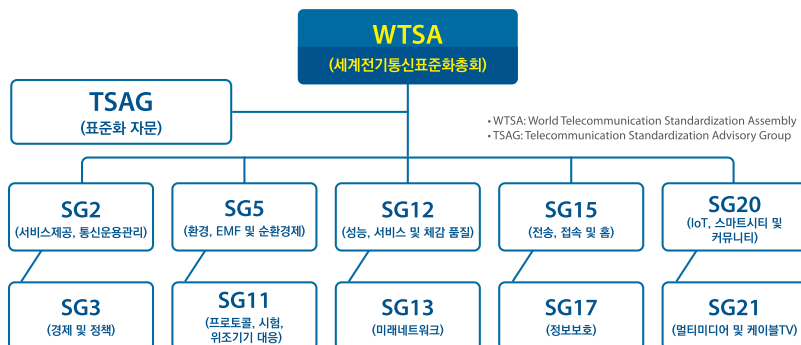
WTSA-24에서의 연구반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연구반 활동 분석 등의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바 있다.

2023년까지는 구체적인 연구반 구조조정 관련 분석 자료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2024년 1월, 일본은 전기통신표준화자문(TSAG)에 SG9(광대역 케이블 및 TV)과 SG16(멀티미디어)을 통합해 신규 연구반으로 신설하자는 제안을 했다. 해당 제안은 특별한 이견 없이 잠정 합의됐고, 이후 해당 두 연구반 간 협의를 통해 업무 영역, 연구과제, 연구반명 등이 논의됐다. 결국 7~8월 TSAG에서 검토 후 이번 WTSA-24에서 최종 합의 및 승인됐다.

신규 연구반은 SG21로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달 및 케이블 TV 분야 표준화'를 연구하게 된다. 이는 기존 각 연구반에 있던 연구과제를 대부분 단순 통합하고, 일부는 이관하거나 통합하는 형태로 승인됐다. 이로써 차기회기(2025-2028) ITU-T 연구반은 1개 자문반과 10개 연구반으로서 총 11개 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2 ITU-T 의장단 선출

WTSA에 참여하는 각 수석대표들이 가장 중요하



[그림 2] ITU-T 연구반 조직도

<표 1> 우리나라 의장단 선출 결과

No.	구분	연구반	소속	성명	직위	비고
1	의장(1석)	SG20(IoT 및 스마트시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연구위원	연임
2	부의장 (7석)	TSAG(전기통신표준화자문)	순천향대	염홍열	명예교수	신규
3		SG2(전기통신관리, 운용)	IB&S컨설팅	이인섭	대표	연임
4		SG5(환경, EMF 및 순환경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찬	책임	연임
5		SG11(프로토콜, 시험, 위조기기 대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남석	실장	연임
6		SG13(미래네트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강찬	실장	신규
7		SG15(전송, 접속 및 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태식	실장	연임
8		SG21(멀티미디어 및 케이블 TV)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산각	책임	신규

<표 2> 국가별 의석 현황

번호	국가명	의장	부의장	총합	번호	국가명	의장	부의장	총합
1	가나	-	4	4	22	우간다	-	2	2
2	그리스	-	2	2	23	우루과이	-	1	1
3	나이지리아	-	1	1	24	우즈베키스탄	-	11	11
4	남아프리카	-	2	2	25	이집트	1	4	5
5	독일	-	1	1	26	이탈리아	-	1	1
6	루마니아	-	1	1	27	인도	1	9	10
7	르완다	-	2	2	28	일본	1	7	8
8	리비아	-	1	1	29	잠비아	-	3	3
9	멕시코	1	-	1	30	중국	1	9	10
10	모로코	-	1	1	31	캐나다	1	2	3
11	미국	1	6	7	32	케냐	-	4	4
12	바레인	-	1	1	33	코트디부아르	-	2	2
13	부르키나파소	-	1	1	34	쿠웨이트	-	3	3
14	브라질	-	5	5	35	키르기스스탄	-	1	1
15	사우디아라비아	1	4	5	36	탄자니아	-	2	2
16	세네갈	-	1	1	37	튀니지	-	5	5
17	스웨덴	-	3	3	38	튀르키예	-	4	4
18	아랍에미리트	-	3	3	39	프랑스	1	-	1
19	알제리	-	7	7	40	핀란드	-	1	1
20	영국	1	3	4	41	한국	1	7	8
21	요르단	-	2	2					
총 합: 140석(의장 11석, 부의장 129석)									

게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의장단 선출이다. 또한, WTSA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새롭게 구성되는 연구반 의장단 선출이다. 이는 의장단 진출을 통해 각 국가별 주력 분야, 주도 분야를 가늠할 수 있

으며, 또한 의장단 수임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매우 신중하게 의장단 선출에 접근을 다루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선 총 11개 그룹을 대상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현재 PP(전권회의) 결의에 따라 TSAG 부의장은 지역그룹별 2석, 연구반 부의장은 지역그룹별¹ 3석으로 제한되며, ITU-T 활동이 가장 활발한 APT 지역에서 다수의 부의장 후보가 제출됨에 따라, 각국별 의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했다. 우리나라는 11개 모든 그룹에 후보를 제출했으나, 지역 및 국가별 균형, 1 국가 1 의장석 초과 수임 불가 등에 따른 협의 결과 전체 140석 중 총 8석(의장 1석, 부의장 7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TU 전 분야 의장단 의석 2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SG20 의장으로 재선출됐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표준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러시아 후보의 경우, 지난 WTSA-20에서 많은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투표를 통해 러시아 의장단 후보를 모두 미선출한 바 있다. 러시아 후보 미선출에 찬성한 국가는 53개, 반대표는 19개국을 기록했다. 이번 WTSA-24에선 러시아가 서방 진영의 러시아 후보 제외 요청에 대해, 유럽·미국·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 후보 모두의 임명 여부 투표로 맞대응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여 개 투표국(유효 투표수)중 50여 개국이 러시아 후보 선출에 반대했다(찬성 40여 개국). 나머지 서방국 후보들에 대해선 80여 개국이 선출 찬성, 10여 개국이 반대해 러시아 후보만 미선출됐다(승인조건: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 다만, 지난 WTSA-20 때와 비교할 때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가 말리, 브라질, 이집트, 세네갈 등 40여 개국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BRICS 같은 경제적 협력국 등의 입장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천된 TSAG 부의장 후보자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후 아프리카 지역 내 추가 협의 후 2025년도 TSAG에서 부의장이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2.3 WTSA 결의 제·개정 및 폐지

WTSA 결의는 차기 연구회기 동안 ITU-T의 운영 절차, 표준화 활동 프로그램 방향성 등을 담은 규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신규 결의 제안 13건을 포함한 총 69건(주제별)의 결의 및 권고 제·개정, 폐지가 제안됐다. WTSA에는 보통 각 지역그룹별로 공동기고서를 제출하며, 우리나라는 APT 지역을 통해 제안된 공동기고서 45건 중 8건을 주도하고, 11건의 지지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대응을 진행했다.

신규로 제정된 결의 중 ‘메타버스 표준화 촉진 및 강화’의 경우, APT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결의를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통합해 하나의 결의로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이전 회기(2022-2024)에 활동한 FG-MV(메타버스 포커스그룹) 의장(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수입한 바 있으며, 메타버스 표준화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APT에 신규 결의를 제안하고, 이를 이견 없이 반영한 후, 이번 WTSA-24에서도 주도국으로서 신규 결의로 반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표준화 촉진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표준화 활동 강화’ 신규 결의안도 APT에 제안 및 반영했다. 해당안은 우리나라의 WTSA-24 주도국으로서 활동 및 다수국의 지지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결의로 채택됐다.

그 외에도, 결의 22(TSAG의 WTSA간 집행 권한),

1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아랍, 아프리카, 구소련연방 등 총 6개 지역그룹

<표 3> 우리나라 주도 결의 주요내용 및 결과

구분		주요내용	결과
메타버스	제정	메타버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 표준화 작업 촉진 및 강화	반영
디지털전환	제정	관련 표준화 작업 촉진 및 교육, 세미나 개최 등 결의	
결의 22(TSAG 권한)	개정	다양한 기관의 참여 증진 방안 연구 등 전권회의 지시사항 이행 등	
결의 50(사이버보안)	개정	사이버보안 위험성 관리 및 ICT 네트워크 안전성 중요성 강조 등	
결의 52(스팸대응)	개정	AI와 같은 신기술 응용 관련 연구 지시 등 결의	
결의 80(회원의 참여 인지)	폐지	결의 주요 임무가 이행 및 완료됐으므로 폐지 제안(결의 간소화)	Action Item 채택*
양자내성암호	제정	양자내성암호 기반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관련 권고 개발 등	
디지털신원 및 증명	제정	우수 사례 발굴, 표준/기술보고서의 지속적 개발 등	

* 결의 채택 없이 향후 논의 촉진 등을 위해 WTSA-24 회의록에 Action Item으로 포함

<표 4> 신규 결의 채택 현황

번호	제안자	제목
1	아태지역	ITU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의 표준화 활동에 차세대 전문가들의 참여 강화
2	모든 지역그룹	메타버스 표준화 촉진 및 강화
3	아태지역, 아랍지역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표준화 활동 강화
4	미국, 캐나다, 호주, 아태지역*, 구소련연방*	전기통신/정보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AI 기술에 대한 ITU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의 표준화 활동
5	아태지역	차량 통신 표준화 활동 촉진 및 강화
6	유럽지역	긴급 통신을 위한 휴대폰 기반 발신자 위치 정보 제공
7	아프리카지역, 아랍지역, 인도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 활동 강화
8	아프리카지역, 아랍지역	ITU-T 부문에서의 전략적 계획 수립

* 아태지역은 AI 신뢰성/안전성을, 구소련연방은 AI 기술 지원을 위한 생태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제안했으며, 협의를 통해 전기통신/정보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AI 기술 표준화에 초점을 둔 결의 채택에 합의

50(사이버보안), 52(스팸대응 및 방지)의 개정 초안 개발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기고를 통해 APT 주도국으로 선정 되는 동시에, 최종 결의 개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우리나라는 WTSA 결의 간소화 원칙에 따라 임무가 완료된 결의 80(ITU-T 개발에 있어 회원의 적극적 참여 인지) 폐지를 제안 및 주도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이 WTSA를 대응하는 데 있어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을 포함해 총 8건 신규 결의가 채택됐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맺음말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한국ITU연구위원회 산하에 WTSA-24 준비단을 구성해 2024년 10월까지 총 6차례 국내회의 개최, APT WTSA-24 준비그룹과 WTSA-24 국제회의 대표단 5회 구성, 51건 기고서 제출 등 적극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대응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APT WTSA-24 총회 의장 및 산하 작업반 의장, 부의장 등 모든 그룹에 의장단으로 진출 및 활동해 아태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WTSA-24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WTSA-24 본회의 총회 부의

장을 포함한 산하 작업반, 애드혹 의장단으로도 진출해 다양한 포지션에서 주도적으로 이슈를 이끌어 가는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도로 제정된 메타버스, 디지털 전환 신규 결의의 경우, 디지털 기술 표준화를 통한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총회인 WTSA-28는 2028년 하반기(10월 혹은 11월, 장소 미정)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반 구조조정, 전략계획, WTSA 준비 등의 주요 이

슈는 TSAG과 연구반에서 각 영역에 맞게 논의돼 WTSA-28로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차기 회기(2025년-2028년) 동안 국내 전문가, 정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차세대 전문가들의 참여 강화’ 신규 결의에 따라, 향후 ITU를 비롯한 표준화 분야에서 우리나라 차세대 표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략 마련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